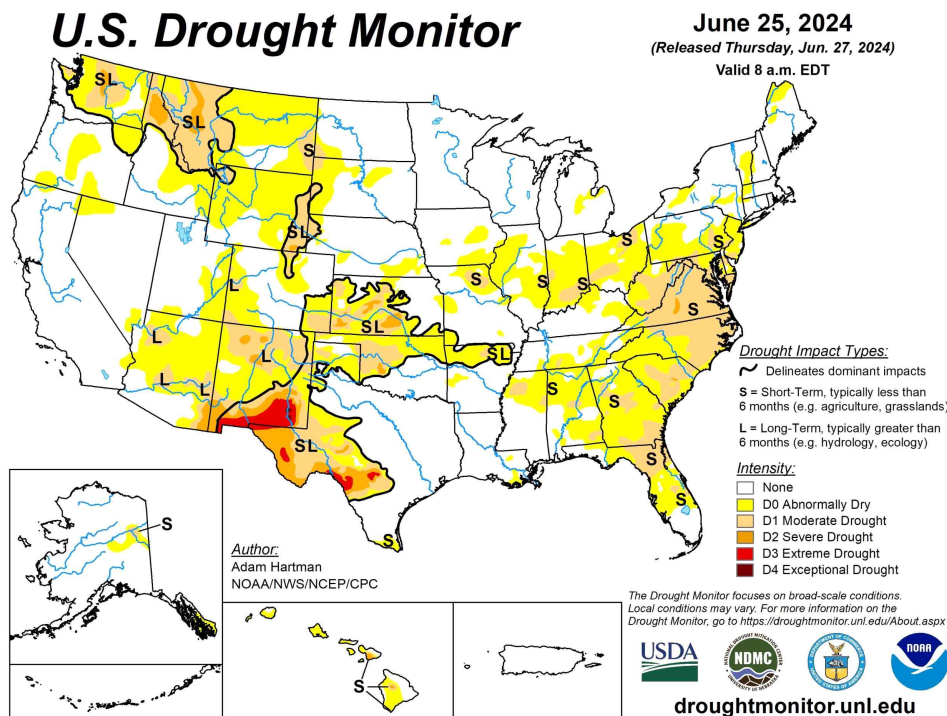




7월 2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11, No. 27)

□ 미국 기후 현황(6/23-6/29)

남서부의 몬순 순환이 평년보다 좀 더 일찍 더욱 완전하게 확고해지면서 포코너스 주들에 천둥을 동반한 소나기를 퍼부었고 산불 억제 노력에 도움이 되었다. 남서부의 습기 가운데 일부가 미국 중부와 동부를 가로지르는 한랭전선으로 운반되면서 국지적으로 강수량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 가장 심한 소나기 가운데 일부가 중서부 여기저기에 내려서 최근에 덥고 건조한 날씨를 겪었던 지역의 농작물 상태를 안정시켰다. 국지적인 폭우가 평원 북부, 북동부 및 남동부 하부 등 다른 지역들에도 내렸다. 그 비는 영양기 내지 생식기 여름작물들을 위해 일반적으로 유익한 수분을 제공했다. 그러나 중서부 상부의 일부에서는 빗물이 지류에서 미주리 강과 미시시피 강과 같은 더 큰 수로로 배수가 천천히 되면서 비 때문에 홍수 회복 노력이 둔화되었다. 그밖에 극서부의 대부분에서는 계절적으로 건조한 날씨로 만연했던 반면 미국 남중부에서부터 북동쪽으로 대서양 연안 중부까지 많은 지역들에서 덥고 건조한 날씨가 작물과 목초지에 스트레스를 가중시켰다. 초여름 더위가 특히 수염기 옥수수과 기타 생식기 여름작물들에게 스트레스가 되었다. 캘리포니아에서부터 동쪽으로 중앙 및 남부 평원까지에 있는 여러 지역들에서 주간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5-10° F 높았고 미시시피 삼각주에서부터 대서양 연안 주들의 일부까지 (조지아에서부터 뉴저지까지)는 평년보다 최소 5° F 높았다. 대조적으로 몬테나에서부터 오대호 상부까지 국가 북부 국경 지역을 가로질러 평년보다 약간 낮은 기온이 관찰되었다.



□ 농업 현황 요약(6/24-6/30)

캘리포니아 대부분, 대서양 중부, 미시시피 계곡 하류, 태평양 북서부 그리고 남부 평원은 평년보다 건조한 날씨를 겪었고 오대호 일부, 미시시피 계곡 중부, 북동부, 로키산맥, 남동부 그리고 남서부는 평년 대비 최소 두 배의 주간 강수량을 기록했다. 루이지애나 해안의 일부에 6인치 이상의 비가 내렸다. 한편 해당 주간 동안 전국 대부분은 평년보다 따뜻했다. 남부 평원 일부, 로키산맥 그리고 남서부는 평년보다 9° F 이상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 대조적으로 국가 북부 국경 대부분은 평년보다 선선했다. 노스다코타에 있는 몇 곳들은 평년보다 6° F 이상 낮은 기온을 기록했다.

□ 세계 기후 현황(6/23-6/29)**■ 유럽:**

유럽 북서부는 날씨가 알맞게 더 건조했고 이와 나란히 유럽 대륙의 동쪽 및 남쪽 일부에는 광범위한 소나기가 내렸다. 영국 남동부, 프랑스 북부, 독일 북서부에서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아주 습했던 6월 후반 이후 겨울작물의 건조를 촉진했다. 동독에서부터 폴란드와 발트해 연안 국가들까지 매우 가변적이기는 하지만 국지적인 폭우 (1-55 mm)가 야외 작업 속도를 저하시켰으나 영양기 옥수수과 해바라기를 위한 표토 수분을 유지해주었다. 더 남쪽으로 가면 이탈리아에서부터 발칸 반도 서부와 중부 지역까지 흠뻑 젖는 비 (25-100 mm)가 내려서 영양기 내지 생식기 여름작물들을 위한 토양 수분을 올려주었다. 그 비는 계속되는 더위의 영향도 완화했고 어떤 지역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37° C에 달했다. 마찬가지로 이베리아반도 전역에서 산발적으로 내린 소나기와 뇌우가, 어떤 지역에서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다고 보고하기는 했으나, 여름작물들을 위한 토양 수분을 올려주었다. 지중해 분지 전역에서 날씨가 불안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에서는 건조하고 더운 날씨 (최대 40° C)가 단기 가뭄을 악화시켰고 개화 중인 면화의 관개 수요를 아주 높은 수준으로 유지했다. 다뉴브 강 계곡 남동부에서는, 최고 기온이 섭씨 30도 초반으로 제한적이어서 더위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건조한 조건들이 토양 수분을 감소시키기도 했다.



■ 구소련(서부):

내륙 농작물 지역에 소나기가 내린 것과 대조적으로 남부 지역은 다시 건조한 날씨로 돌아갔다. 몰도바에서부터 동쪽으로 러시아 남서부까지 대체로 맑은 하늘이 겨울 작물의 건조를 촉진했고 여름작물들이 쉽게 생식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여 러시아 최남단에서는 옥수수가 수이삭기로 들어가고 있었다. 최근 6월에 비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핵심 지역들 가운데 많은 곳들은 유난히 건조한 봄으로 인한 현저한 장기간의 강우 부족을 여전히 겪고 있었고 흑해 연안 인접 지역에는 건조함이 다시 나타나서 가뭄에 대한 우려가 다시 일어났다. 한편 러시아 중서부에서는 한 부분에 보통 내지 강한 수준의 비 (10-35 mm)가 내려서 국지적으로 종실비대 중인 겨울밀과 영양기 여름작물들에게 도움을 주었다. 우크라이나 중부와 북부의 핵심 옥수수 지역에도 약하거나 보통 수준의 소나기들 (2-30 mm)이 내렸고 우크라이나 서부와 몰도바 북부에서는 보통 수준 내지 아주 강한 비 (10-100 mm) 내려서 대두와 기타 영양기 여름작물들을 위한 토양 수분을 올려주었다. 마찬가지로 보통 내지 강한 비 (국지적으로 50 mm 초과)가 불가 지역 남동부에 있는 생식기 내지 종실비대기의 봄보리에게 도움을 주었다. 이 권역의 동쪽 절반에서는 기온이 평년 이하였고 (평년보다 최대 5° C 낮음) 이와 대조적으로 벨로루시, 몰도바, 우크라이나 서부에서는 더위가 발달했다 (평년보다 2-4° C 높음). 비정상적인 서쪽의 그런 따뜻함은 7월 1일 현재 그 지역 대부분에서 최고 기온이 광범위하게 35° C에 육박하거나 넘어가는 폭염의 전조였다.

■ 동아시아:

몬순 소나기가 중국 남부를 지나 동쪽으로 일본으로 계속 이동했다. 대부분의 지역들이 50-200 mm의 비를 기록했는데 꼼짝하지 않고 있던 띠 모양의 폭우 지대에 내린 비는 300 mm를 넘어갔고 국지적으로 홍수를 일으켰다. 그 수분은 일반적으로, 조생벼 수확이 초기 단계에 있었지만, 남중국에서 영양기 여름 벼와 기타 여름작물들에게는 반가운 것이었다. 한편 북동부에서는 지나가는 소나기 (10-50 mm 또는 그 이상)가 영양기 옥수수와 대두를 지원했다. 랴오닝에서는 소량의 강우 (10 mm 미만)가 작은 면적에 내렸을 뿐이었지만 수분 조건은 여전히 작물들에게 적당한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다른 곳의 습한 날씨와 대조적으로 화북평원에서는 더위와 건조함이 지속되었다. 밀 수확이 거의 끝난 지금 보충 관개를 받을 수 없는 여름작물들에게는 더 많은 수분과 더 선선한 날씨가 절실히 필요하다. 서쪽은 단기간의 폭염으로 인해 면화에 대한 관개 수요가 올라갔고 이 작물에게 약간의 스트레스가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작물의 상태는 여전히 우수했고 수확량이 많은 다른 해들 (2020년과 2022년)과 유사했다. 이 권역의 다른 지역을 보면 광범위한 소나기가 일본에 확산되어 (북쪽은 25-100 mm, 남쪽은 100-300 mm 이상) 벼에 대한 수분 공급을 풍부하게 유지했고 반면 남한은 건조해지면서 벼가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을 감소되었다.

■ 호주:

호주 남부와 서부에서는 산발적이면서 국지적으로 내린 폭우 (5-25 mm 이상)가 밀, 보리 그리고 캐놀라의 활착을 더욱 도왔다. 남호주와 빅토리아의 먼 서부에 내린 그 비는 특히 유익하여 겨울 재배철이 시작될 때 아주 건조했던 지역들에서 토양 수분을 올려주었다. 호주 남부와 서부에서는 평균 기온이 평년 부근이었고 최고 기온은 일반적으로 섭씨 10도 중후반이었다. 밀 지대 내 다른 곳을 볼 때 호주 동부 대부분에서는 화창하고 계절적으로 온화한 날씨로 영양기 밀과 기타 겨울작물들이 혜택을 입었다. 최고 기온은 남쪽의 10도 중반에서부터 북쪽의 20도 초반까지의 범위를 보여주었다.

■ 아르헨티나:

날씨가 다시 평년보다 선선해지면서 겨울 곡물의 성장을 둔화시켰으나 조건들은 현장 작업에 전반적으로 유리하게 유지되었다. 나라 대부분에 걸쳐서 주간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1-2° C 낮았고 결빙이 북쪽으로 산티아고델에스테로와 차코까지 확장되었다. 한편 소나기의 발생 빈도는 낮았고 약하여 야외 작업이 약간의 지연되었을 뿐 진행될 수 있었다. 총 강우량이 10 mm를 넘어간 부에노스아이레스 남동부와 먼 북동부를 제외하면 주요 농업 대표지들에서는 측정 가능한 강우 총량이 1-7 mm 었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6월 26일 현재 밀과 보리가 각각 70 및 67 퍼센트 파종되었다; 한편 옥수수과 면화는 각각 67 및 66 퍼센트 수확되었다.

■ 브라질:

따뜻하고 화창한 날씨가 브라질 중부 및 북동부에 있는 주요 산지에서 옥수수와 면화의 빠른 성숙을 촉진했다. 마투그로수 정부에 따르면 옥수수는 6월 28일 현재 62 퍼센트 수확되었는데 이는 5년 평균 속도보다 18 포인트 앞선 것이다; 면화의 수확은 여전히 1 퍼센트만 완료되었을 뿐이었다. 더 남쪽으로 히우그란지두술과 파라나에서는 소나기 (10-50 mm 또는 그 이상)가 밀을 위한 수분을 적당한 수준으로 또는 국지적으로 과도한 수준으로 유지해주었고 비슷한 양이 서쪽으로 파라과이까지 내렸다. 그러나 계절에 맞지 않게 따뜻한 날씨 (낮 최고 기온이 섭씨 30도 초반에 도달)로 인해 파라나 북부와 그 주변에 있는 영양기 또는 생식기 밀의 수분 요구량은 계속 높았다. 파라나 정부에 따르면 2기작 옥수수는 6월 24일 현재 42 퍼센트 수확되었다; 한편 밀은 94 퍼센트 파종되었고 출현한 작물의 15 퍼센트가 개화되었다. 히우그란지두술에서는 옥수수가 6월 27일 현재 98 퍼센트 수확되었고 한편 밀은 56 퍼센트 파종되었다.